



돌아온 캠프!

드디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캠프를 할 수 없어서 모두들 힘들어했습니다. 다행히 여러가지 제약들이 완화되어서 캠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모두 좋아했습니다. 삼년 만에 캠프를 하니 그 사이 아이들이 부쩍 성장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 총기 사고가 더 심해져서 더 이상 집 앞길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한 시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 교회 체육관에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들은 관계자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리더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줘서 고맙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건물을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실내에서 캠프를 한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었는데, 저희는 냉방이 잘 된 실내 공간에서 더운줄 모르고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통제가 가능한 공간에서 진행하니 안전한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시원하고 넓은 체육관이 자신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했습니다. 신나게 춤추고, 뛰노는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프가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열 시인데, 아홉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농구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게임을 하기도했고, 혹은 봉사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도 계속 코비드 확진자들이 생겨 캠프 동안 염려를 했습니다. 둘째주에 섬기러 왔던 봉사자들 가운데 확진자가 생겨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는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고, 참석한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게 네 주를 잘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캠프를 통해 경험하는 큰 축복 중 하나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갔을 때입니다. 주립 공원 안에 있는 수영장에 도착해서 줄을 세우고 입장료를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 명씩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올 여름에 처음 캠프에 등록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순서가 되어 매표소를 지나서 수영장을 본 순간, 눈동자에 빛이 났고,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동네 수영장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크고 훌륭한 시설을 보고는 신이 났습니다.

새학년, 새 가방

올 여름에도 새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롱 아일랜드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올해도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 백팩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서 보내주셨습니다.

행사를 진행한 토요일 오후에는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오신 봉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햄버거와 핫독을 제공해주셨습니다. 학용품을 받으러 온 가족들은 먼저 식사를 하고 체육관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숫자대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학용품 값이 올라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부담이 되었는데, 예쁜 백팩에 필요한 학용품을 채워서 받은 이웃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사실 동네 바깥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는 아이들에게 버스를 타고 한시간이 넘게 떨어진 주립 공원으로 가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어쩌면 사건 사고가 잦은 동네를 떠나 나무가 우거지고 넓은 호수가 있는 공원에 가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영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아이들도 시원한 물 속에 있는 것 만으로도, 친구들과 마음껏 놀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저는 두 시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새학기를 준비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이웃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 전환



캠프를 시작한 첫 날 오후, 갑자기 자원봉사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가보니 한 사내 아이가 사타구니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끼 손가락만큼 절개되었고, 아이는 아픔과 충격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세 명의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자기를 못나오게 하려고 문을 막았고, 그래서 문을 밀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세 명의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제게 울먹였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일의 전말을 확인 못했기에, 일단 아이들과 엄마들이 모여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변수로 계획했던 모임이 계속 연기되다 되어서, 결국 마지막 주에 네 명의 아이들과 세 명의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했고, 다른 세 명의 아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치게 된 경위가 다른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아이가 뛰어내리다 문에 부착된 금속 옷걸이에 사타구니가 걸려서 다쳤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렸고, 다른 두 어머니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악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싶게 함께 어울려 놀았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평화롭게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캠프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여전한 사건 사고

여름 동안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월 말, 십대의 청소년 다섯명이 새벽 두시 반에 지나가던 칠십대 노인을 트래픽 콘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쓰러트리고 그 이후에도 돌아가면서 폭력을 가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8월 19일 오전 아홉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영장을 들고 제가 사는 블럭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세명의 용의자를 구속했습니다. 반자동 소송 세 정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그 집에는 19세의 여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할아버지는 항상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 사내아이들은 여자아이를 이용한 것이지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캠프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깨닫습니다. 캠프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자원 봉사자

올해에는 네 명의 고등학생들이 캠프를 위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모두 어린 때부터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입니다. 제이슨, 카지라, 제이아나, 그리고 사바나. 어릴 때는 수줍어하고 말도 잘 안하던 친구들인데 이번 캠프 기간동안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캠프를 도왔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어린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자원봉사자로 캠프를 섬기고 싶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첫학년을 잘 마친 브라이언과 아야샤는 스태프로 함께 했습니다. 함께 캠프를 섬겼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라이언과 아야샤는 아이들과 너무 잘 놀아주고, 아이들도 잘 따릅니다. 정말 놀라워요.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던 아이들도 브라이언이나 아야샤가 타이르면 금방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여섯살 때부터 캠프에 함께 한 브라이언과 아야샤는 저희 동네 아이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두 사람을 따르는 건 당연하지요.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샤니스는 동생 마이샤와 함께 캠프를 통해 자랐습니다. 삼 년 전,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집을 팔아서 샤니스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엄마는 막내인 아들과, 샤니스는 아버지와, 마이샤는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동안 락다운으로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샤니스가 템플대학 간호대에 입학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 곳곳하게 버텨낸 샤니스가 너무나 장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가을부터 다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썸머 캠프를 통해 동네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는 사실이 교회 관계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통해 동네 아이들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태후 목사

267-858-2842 TAEHOOLEE123@GMAIL.COM

한국후원 : 하나은행 364-910459-67107 이태후

미국후원 : WELLS FARGO BANK #2694720547 NORTH PHILLY COMMUNITY CHURCH

2147 N. UBER ST. PHILADELPHIA, PA 19121